현불논단

‘장애 제로’ 초전도체형 불자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한국불교학회장

‘상온 초전도체’ 진위여부 떠나
수행자의 장애 없음 되새겨봐야
‘장애 극복’ 강조한 부처님 말씀
가르침 인식 · 활용은 각자의 몫

욕심 줄여 공덕 널리 회향하고
장애 멀리하며 담마 가까이해야
부처님 제자인 참된 불자로서
다른 이 방해 않는지 돌아보자

과학세계는 고정된 사고틀(패러다임)을 깨는 도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은 ‘이것만이 옳고 다른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 결론이나 주장에 ‘아니다’ 라고 답한다. 또한 과학은 변화하며 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최근 아카이브에 상온 초전도체 ‘LK-99’에 관한 논문이 소개되었다. 주장의 진위여부를 제쳐두고라도 상온 초전도체는 세상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마이너스(반자성) 효과 이외에 초전도체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환경에서 모든 전기저항이 제로라는 점이다.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담마(法, Dhamma)는 ‘일체가 신의 결정, 무인과(無因果)나 물질소생’ 이라는 결정적 사고에 새로운 인식전환을 가져왔다. 즉, 일체는 인연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소멸한다는 가르침[담마]이 소개된 것이다. 부처님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고, 제자들은 법담을 나누고 수행을 실천했다. 담마의 길은 바로 공덕을 실천하고 악덕을 버리고, 마음의 장애를 맑히는 것이다. 공덕을 실천하면 행복을 경험하고 악덕을 실천하면 고통을 경험한다. 공덕의 결과는 행복이며 악덕의 결과는 고통이다. 내가 공덕을 지어 장애 없이, 악덕을 지어 장애 받고 살 것인지는 지금 여기 행하고 있는 행위에 달려 있다.

초전도체의 저항 제로를 불교에서는 수행자의 장애 없음에 빗댈 수 있다. 육신통을 지닌 부처님은 두려움과 장애나 걸림이 없었다. 눈과 형상[색]이 상호조건이 되어 열 가지의 족쇄(탐욕, 분노, 교만, 사견, 의심, 잘못된 계와 명세에 집착, 시기, 인색, 존재에 대한 탐욕, 무명)가 생긴다고 한다. 특히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탐욕, 성냄(악한 의도), 게으름(나태), 들뜸(우울)과 의심이란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불자로서는 승가에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승가 내에서는 출가와 출가생활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승가의 일원으로 사회와 재가자의 삶에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한다. 불자는 담마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일과 개인과 단체의 선행 공덕을 장애하지 말아야 한다. 경전을 배우고 수행하고 전법을 실천하는데 장애되는 요소를 지금 여기서 줄이고 버려야 한다.

진리는 사실이지 정답이 아니다. 계단을 보자. 계단을 오르는 이는 오르는 계단, 내려오는 이는 내려오는 계단, 서 있는 이는 서 있는 계단, 바라보는 이는 바라보는 계단이라고 각기 주장한다. 계단은 하나이지만 조건에 따라 계단의 작용이 다른 것이다. 그것은 옳고 그른 종류의 것이 아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계단과 같다. 계단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오르고 내려오고 서 있고 보는 이가 각각에 맞게 활용하면 되는 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담마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 여기 우리의 몫인 것이다. 담마를 역경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수행하고, 설법하고 전법하는 일은 우리의 처지와 분량에 맞게 하면 되는 일이다. 담마를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전하는 행복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는가? 이를 체감한 불자는 되고 장애하는 일을 멀리하고 담마를 가까이 하는데 전념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 제자답게 개인, 단체에 장애 없고 걸림 없는 초전도체 같은 불교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지금 남의 기도, 수행, 배움을 방해하지 않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나와 내가 속한 단체의 사고틀이나 행동틀로 삼보나 불교에 대한 믿음을 쇠퇴시키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제주의 관문, 추자도

후풍도(候風島), 제주의 첫 관문인 추자도의 옛 이름이다. 바람의 길 위의 섬이다. 조선 최고 표해록 중의 하나인 최부의 〈금남표해록〉도 추자도에서 태풍을 만나면서 시작된다.

추자도는 사람이 최초로 거주한 연대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제주도와 한반도를 잇는 뱃길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 〈고려사〉에 삼별초를 진압하기 위한 여몽연합군과 목호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최영의 병력도 이곳에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후로 주민들은 최영의 사당을 세워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바람의 섬은 격변의 역사를 겪었다. 고려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극심하여 충정왕 때 주민들을 제주의 도근천 주변으로 이주시켰으며, 조선에서는 공도정책으로 주민들에게 섬을 비우게 했다가, 다시 임진왜란 직후부터 추자도를 방어할 목적으로 주민들을 거주시켰다.

추자도에 불법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일까. 〈고려사〉에 보면, 송나라로 불법을 배우러 가던 일본의 관선대사 일행 230여명이 추자도로 표류하였다고 한다. 물론 불법의 전래는 이보다 앞서 탐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중심지는 상추자의 대서리항구 주변인데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영흥리 일대였다. 〈마을지〉을 보면, 이 영흥리의 옛 지명은 절골이다. 영흥 마을은 절이 있어 절골 또는 사곡(寺谷) 마을이라 불리다가 일제 이후 개칭되었다. 추자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큰산을 병풍 삼아 산 19번지 일대에 자리한 절은 섬마을의 안녕을 지켜주었다. 지금까지도 절기미라고 불리는 산신당에 ‘산신령신위’ 라고 쓴 비석이 모셔져 있다. 이 산신제는 대서리에 있는 최영장군의 당제 그리고 해신제와 연계되어 음력 2월 15일 해질 무렵 같은 제관이 제를 지내는 풍어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사람이 죽어서 운상을 하고 장지에 봉분할 때까지 장례 전 과정에서 부르는 추자도 ‘상부소리’ 가 있다. ‘가난보살’로 시작한 노래는 동네를 떠날 때, 매장을 마무리할 때 이르기까지 “가난보살 가난보살 …”하고 송을 한다.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사설적 흐름보다는 음악적 흐름을 중시하여 본사(本辭)보다는 여음구와 후렴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장례 의식과정에서 인생무상을 노래하여 상주와 공감을 형성하고 ‘가난보살’을 염송해서 위안을 주고 있다.

‘가난보살’은 어떤 보살일까? 제주의 영등신화의 ‘개남보살’과 같은 인물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증의 〈남사일록(南槎日錄)〉을 보면, “4월 4일에 제주에서 출항하게 됐다.… 대소화탈섬을 12시에 지나는데 물결이 높고 배가 흔들려 멀미를 했다. 뱃사람들은 합장을 하여 관세음보살을 외우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어 갈 때쯤 추자도를 지났다”고 한다.

이처럼 바다와 바람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에게 고해를 건내주는 관음보살은 큰 의지처이었던 것이다. 〈관음경〉에 “혹 큰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혹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사 큰 폭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뒤집혀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음의 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추자도 아니 후풍도는 관음의 보타낙가산이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불교계 저력 보여준 잼버리 지원

‘호국불교를 넘어 구국불교.’ 파행적인 운영으로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이하 잼버리 대회)에 불교계가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총체적 운영 미숙이 드러난 잼버리 대회의 구원투수는 단연 불교계였다.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 등 호남 지역 사찰들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는 `카우트 대원들에게 단비로 다가왔다. 사찰들은 기록적인 폭염에 당초 예정된 프로그램을 변경해 경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대원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했다.

조계종은 8월 5일 긴급 지원 지침을 시달하고 전국 24개 교구본사와 147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조계종 직영 한국문화연수원 등에서 참가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영지나 또는 숙박을 제공키로 했다. 8월 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직접 새만금 잼버리 법당 등을 찾아 대회 원만회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조기 철수된 후에도 불교계의 지원은 이어졌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는 일본 스카우트 단원 1600명이 입소했고, 천태종 분당 대광사에는 국내 청소년 대원 80명이 입소해 치유명상 · 고구려북명상 · 탁본 · 스님과의 차담 등을 체험했다. 조계종은 서울 시내 12개 사찰에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부와 대회 주최 측의 오락가락한 행정과 운영에도 불교계는 한국을 찾은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 성심을 다했다. 이번 잼버리 대회 지원은 국가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민중과 함께 고난을 이긴 한국불교의 저력을 다시 확인시켰다.

‘국보’ 지광국사탑 환지본처에 부쳐

‘승탑의 백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가 반출 112년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2016년부터 5년여에 걸쳐 보존처리를 마친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 부재들이 8월 1일 원래의 위치인 강원도 원주시로 이송됐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세워졌던 고려 시대 국사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으로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 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에 의해 팔려나가 일본과 한국을 오갔고,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서는 경복궁의 장식재로 활용됐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는 폭탄에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이 파손됐다. 당시 피폭으로 탑의 상륜부와 옥개석은 1만 2000여 조각으로 쪼개졌다. 전쟁 이후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원기술자 故임천 선생이 탑을 복원 · 수리했고, 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자리를 잡았다. 2015년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 · 보존처리가 결정됐고, 2016년부터 5년 동안 보수가 진행됐다.

지광국사탑은 보존처리 및 이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지원 등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일제에 의해 자리를 떠난 성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것은 환영할 일이다. 또한 숙제도 남겼다. 현재 본래 자리를 떠나 박물관 소장물로 활용되는 성보문화재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흥천사 동종, 천흥사명 동종, 서산 보원사지 철불,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 등이다. 지광국사탑 환지본처를 계기로 이들 성보의 환지본처도 탄력을 받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블랙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